

콩쥐팍쥐와 신데렐라

서정오

대구 감천초등학교 교사 · 아동문학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동화의 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얼른 떠오릅니까?” 그러면 십중팔구 지붕 끝이 뾰족한 궁전과 요정, 마차와 요술램프 같은 대답이 나온다. 초가집과 나무꾼, 지게와 땀이 떠오른다는 대답은 잘 듣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묻는다. “그런 모습은 우리 것인가요, 남의 것인가요?”

‘동화의 나라’ 라는 말을 듣고 얼른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 머리 속에 새겨진 동화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머리 속에는 서양 동화의 형상이 무섭게 각인되어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런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어릴 때 읽은 동화의 영향이다. 어려서 읽은 동화 한 편은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마치 바위에 새긴 글자처럼 뚜렷이 남아 있게 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어른들은 어릴 적에 서양 동화를 많이 읽고 자랐으며, 그 영향으로 ‘동화’ 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 속에 새겨진 서양 동화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아이들은 어떤가? 남의 나라 동화를 읽고 자라는 문제에 관한 한, 그 정도가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덜해지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글자를 깨치면서부터 제법 어른티가 날 때까지 남의 나라 이야기를 읽고 자란다. 지금 당장 책방에 가 보라. 유아용 그림책에서부터 세계명작동화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는지 알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 본다. 과연 다른 나라 아이들도 우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랄까?

나는 여기서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남의 나라 동화를 읽히지 말자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읽을거리를 마련해 주자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적어도 남의 나라 동화를 읽는 만큼 우리 이야기도 읽도록 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또, 남의 나라 동화보다는 우리 이야기를 먼저 읽히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나라마다 겨레마다 독특한 문화라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동화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읽힌다든지, 우리 동화를 읽히기도 전에 남의 이야기를 먼저 읽혀서는 서로 다른 정서의 맞부딪침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심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남의 나라 이야기는 나라마다 가진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나이가 되어서 읽혀도 결코 늦지 않다.

실제로, <백설공주>와 같은 남의 나라 동화에 빠진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빛이 노란 데에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백인들이 만든 이야기에는 살결이 희면 곧 예쁘고, 예쁘면 곧 착하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얼굴빛이 검든지 푸르든지 누렇든지 색깔이 있으면 곧 추하고, 추하면 곧 악하다는 등식도 성립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살결이 ‘백설’ 같이 희지는 않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데렐라’ 보다는 ‘콩쥐팍쥐’가 더 건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겨레가 가진 독특하고도 건강한 문화와 정서를 바로 받아들이고, 이 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책부터 바로 서야 하지 않겠나. 무진장으로 전승되고 있는 우리 옛이야기와 좋은 창작동화가 그런 일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

특집/생각하는 어린이의 책세상	2 “폭력적이고 저질스런 책은 싫어요” 서울시내 초등학교 122명의 책읽기
	4 새바람 일으키는 아동출판의 새내기들 연륜 짧지만 빠르게 뿌리내린 아동서 전문출판사
	6 놀면서 배우는 아동용 CD롬, 다양하게 선보여
	8 어린이 책방, 살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손짓
	9 올바른 길 안내하는 어린이책의 나침반
출판인 칼럼	3 어린이를 걱정하는 책 장사꾼 - 소병훈
표지 인터뷰	6 서울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특별상 받은 김유대씨
해외도서전 참관기	10 어린이의 꿈이 울려퍼지는 공간 - 이호균
탐방	12 어린이책 기획집단 ‘재미마주’ 그림책 전문기획 ‘도토리’
리뷰	14 대중 속으로 걸어 들어온 불교서적 - 황찬익
출판시평	15 과학의 이름으로 중독 강요하는 책들 - 주일우
출판화제	16 고유영역 넘나드는 공동연구의 성과물
출판 포커스	17 출판이 읽어야 할 것 - 이중환
나의 학문과 책 읽기	18 ‘도둑 책읽기’가 이끈 나의 인생 - 박성래 감각적 소설에서 무감각한 과학사로
얼굴	19 ‘과학기술상’ 진흥상 받은 송상용 교수
책과 사상	20 페르낭 브로델의 삶과 사상 - 주경철
책갈피 산책	21 케이플런의 《지구의 변경시대》를 읽고 - 김남일
쟁점 서평	22 “자본은 독점되어 있지 않다” - 공병호 장상환 교수의 재반론을 다시 반박함
연재 기획	24 간추린 어린이책의 역사 책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⑦
서평	26 강선미 외 《가족철학》 - 조주현 이진우 《도덕의 담론》 - 구영모 27 툴민 《코스모폴리스》 - 신중섭 28 안병직 외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 황석만 로펠트 《정보지배사회가 오고 있다》 - 한상진 29 라우든 《포스트모던 과학논쟁》 - 이우선
이 책 그 사람	30 《나는 아직도 선생님 이름을 ...》 퍼낸 김양덕씨 《또또 · 불이의 언론 여행》 퍼낸 김승수씨 31 《이야기 현대학 발견사》 외 퍼낸 강건일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⑨